

건축학교육 인증제도의 국내외 동향 및 대응

- 전문 자격증이 요구되는 학문분야에 있어서 자격증 취득의 전제조건으로 인증 받은 전문 학위과정 수료를 요구하는 것은 세계적인 추세이며, 세계적으로 봤을 때 전문 직능 단체들 스스로가 능동적으로 나서서 전문교육 인증기구를 설립하고, 더 나아가서 각국의 학위인증 효과를 각국 인증원간 상호 인정하는 협약을 맺음으로써 시장개방에 적극 대처하고 있음. 대표적인 예가 공학분야의 Washington Accord 임.
- 가속화되고 있는 국제시장 개방의 압박 속에서 건축사 업무분야의 경우도 예외일 수 없으며, 지금까지 오랜 역사를 갖고 전문학위 인증제도를 실시해온 미국/영국 등의 제도를 본받거나 또는 도움을 받아 최근 나름대로의 인증체제를 설립했거나 설립하기위하여 실제 세계 여러 국가들이 적극 나서고 있는 실정임.

실례 -- 중국, 멕시코, 한국, 터키, 아랍에미레이트, 인도, 나이지리아 등이 있으며, 이 중 중국 멕시코, 한국은 지난 10여 년 새 자국의 독립된 건축학교육인증원을 설립하였고, 활발한 인증업무에 임하고 있으며, 터키는 근 미래에 독립된 인증원 설립이 이뤄질 전망이고 그 밖의 다른 나라들은 해외 인증기구에 그 기능을 의뢰하고 있는 실정임.

- 건축 3단체 연합인 FIKA에 의해 한국건축학교육인증원이 태동하던 시기였던 2003년경부터 건축계에도 공학인증원들의 협의체인 워싱턴 어코드와 비슷한 건축교육인증 상호협의체가 구성될 것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으며,
- 2004년 본격적으로 설립된 한국건축학교육인증원은 국제 건축사업무 분야의 시장 개방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도록 인증기준 및 인증절차 또한 국제적인 인증기준 수준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수준으로 설립되었음.
- 우리 인증원의 짧은 역사와 경험을 만회하고 특수한 분야인 전문건축학위를 인증하기 위한 새로 시작한 인증원으로서 활발한 해외교류와 해외전문가 초빙 등 다방면에 걸쳐 해외 인증원들의 경험 습득을 통한 우리 인증원의 발전을 위해 다음과 같은 실적을 쌓았음.
- 2003년도 FIKA 주최 세계건축교육과 인증 컨퍼런스, Sharon Matthews 발표
- 2004년도 한국건축학교육인증원 주최 건축교육과 시장개방 컨퍼런스, Sharon Matthews, Executive Director, NAAB
- 2006년도 한국건축학교육인증원 주최 실사팀 교육에 초빙 강사, Sharon Matthews, Executive Director, NAAB
- 올 해 한국건축학교육인증원 주최 실사팀 교육에 초빙 강사, Sharon Matthews

그 밖의 해외 교류로서,

- 2002년도 중국건축교육인증원의 북경공업대학교 실사에 참관
- 2003년도 호주인증원 AACA 주관 시드니 대학교 실사에 참관
- 2004년도 미국인증원 NAAB 주관 미국뉴욕의 Pratt Institute 실사에 참관
- 2006년도 영국 RIBA 주관 영국 Portsmouth 대학교 실사에 참관
- 같은해 영국 RIBA 주관 영국 Bath 대학교 실사에 참관
- 같은해 호주인증원 AACA 주관 뉴질랜드의 오클랜드 대학교 실사에 참관

- 2006년 5월 워싱턴에서의 첫 세계 건축교육인증 상호인정 협의체 창설 멤버로써 한국건축학교육인증원이 참여하게 되었음.

참석자로서는 김진균 원장님, 해외담당 이사이신 조성중 박사, 사무총장이신 최재필 교수.

- 이밖에 작년 처음으로 열린 세계 건축교육인증 상호인정 협의체의 미국, 영국, 그리고 UIA 측 대표단들이 2006년도 국내 최초 인증실사에 단순 참관인이 아닌 실제 실사위원으로 참가.

Bill Bevins, Wayne Drummonds, Joe Giatina, (미국 NAAB)

Jim Schiller, Louise Cox (UIA)

George Hendersen (RIBA/CAA)

- 올해 5월 두 번째로 캐나다 오타와에서 열린 건축교육인증 상호인정 협의체 회의는 조성중 해외담당 이사님과 임창복 국내담당 이사님, 그리고 이준석 국내담당 간사가 참여.
- 두 번째 회의에서는 보다 최종 협약 체결을 위한 보다 실무적인 안건들이 토의되었는데 그 중 하나가 각국 인증원들의 인증기준과 절차를 한눈에 비교할 수 있도록 마련된 "Comparative Analysis"를 완성하는 안건이었음.
- 한국건축학교육인증원의 인증규준은 이 비교표를 통해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인증원의 인증규준 내용과 대등한 수준으로 포괄적인 내용과 항목들을 보유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고, 동시에 일부 항목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보충 논의의 여지가 있음을 또한 발견하였음.
- 협약이 체결되기까지 협의체 구성원들은 워싱턴어코드 협약문을 기초로 건축교육인증에 맞도록 다듬어 나가고 내년 4월까지 완성하기로 합의 하였고 그 때까지 협약문의 구체적인 내용들을 CAA를 대표하는 George Henderson 씨가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하면서 정리하기로 하였음.
- 이밖에 Sharon Matthews씨가 발표해주신 내용의 안건들이 통과되었고, 3차 회의는 내년 4월초 호주 캔버라에서 열기로 결정함.

- 한국건축학교육인증원은 세계 건축교육인증 상호인정 협의체의 구성원으로써 현재 협약 문 초안 작성에 적극 참여하고 있고, 근 미래에 건축사 업무 분야의 시장개방에 앞서 우리 건축사들과 미래의 후배 건축사들의 활동무대를 국제화하는데 기여코자 노력하고 있음.
- 이 밖에 당면 과제로써 하루빨리 건축사법의 개정이 이뤄져서 현재의 한국건축학교육인증원의 역할이 법적 효력의 테두리 안에서 이뤄짐으로써, 세계 건축교육인증 상호인정 협의체의 협약 아래 이뤄질 건축학 전문학위의 상호 인정과 우리 건축사자격증의 국제사회에서의 인정에 대비하여 힘을 모아야 할 때임.